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감

[창세기 12:10]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셔서 거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우거하려 하였다. 기근은 보통 하나님의 징벌로 온다. 아마 그 땅 거주민의 죄 때문에 기근이 왔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살던 아브람의 가족들에게도 타격이 왔다. 아브람은 사람의 일반적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은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땅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므로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명하신 땅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 염려와 지혜와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것은 낭패의 길이었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비슷한 생각으로 흉년을 피해 유다 땅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가 낭패했었다(룻기).

[11-12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래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람은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한가지 걱정을 하게 되었다.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면 담대함과 평안이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할 때는 염려와 걱정이 생긴다. 아브람의 걱정은 죽음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의 보기에 그 아내 사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람은 애굽 사람이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낯선 땅에 우거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생각과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모르는 생각이었다.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람은 그런 상황에서 한가지 인간적 대책을 생각해 아내에게 요청하였다. ‘원컨대라는 표현은 아브람이 그 옛 시대에 평소 아내에게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인격적이고 사랑을 가지고 대했음을 보이는 것 같다. 그는 아내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그의 누이라”고 말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아내를 지켜줄 힘이 없었다. 그래서 쓸데없이 만용을 부리지 않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적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래가 그의 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사래는 그의 누이였으나 지금은 그의 아내이다. 아브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은 악이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경건한 아브람의 연약한 모습이었다.

[14절]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브람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은 그의 아내 사래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이었고(창 12:4) 아브람과 사래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므로(창 17:17),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래의 나이는 65세 이상이었는 데도 그 여자는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의 창조 세계의 본래의 모습이다. 아름다움의 주된 한 요소는 조화로움이다. 사람의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의 얼굴을 아름답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아름다움은 음란함으로 더럽혀져 있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아름다움은 인격성과 도덕성과 단정함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15절] **바로와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애굽 왕 바로는 대신들의 칭찬을 듣고 사래를 궁으로 취하여 들었다. 아브람은 하루아침에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는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슬픔과 낭패를 당했던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로 행하는 대신에 인간적 지혜와 판단으로 행했을 때 큰 것을 잃어버렸다.

아브람의 슬픔과 낭패는 하나님의 징책이었다고 보인다. 그것은 마치 훗날에 엘리베크과 나오미 가족의 경우와 같았다. 룻기 1:3-5에 보면,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간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고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얻었으나 그곳에 거한 지 10년 즈음에 두 아들도 다 죽었고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겨졌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말했다(룻 1:13). 또 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했다(룻 1:21).

아브람은 처음부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했을 것이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응답을 얻었을 것이다. 후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1,754명의 유대인들을 인도하여 파사 나라로부터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자했을 때 길에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군대의 지원을 요청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고(스 8:21-23) 무사히 잘 도착하였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애굽 왕 바로는 사래를 인하여 아브람에게 후한 선물을 주었다. 비록 아내 대신 양과 소와 남녀 종들과 암수 나귀와 약대를 많이 얻었지만, 그것이 아브람에게 무슨 기쁨과 복이 되었겠는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브람은 비로소 애굽으로 내려오려 했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기근이 있었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래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것은 아마 무서운 질병이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것은 바로의 행위가 간음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하고 중요한 제도이며 그것을 어기는 것은 간음죄가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며 결혼 관계

를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시며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말 2:16). 더욱이, 사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아내이며 남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될 자이었다.

[18-20절]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는 그 재앙이 사래 때문에 온 것을 깨달았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옳지 않은 일에 가책을 느낀다. 살인, 간음, 도적질이 죄악임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양심 때문이다. 요나의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선원들은 그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기를 원했다(욘 1:7). 헤롯 왕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려 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막 6:20). 그들은 다 양심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다.

바로가 양심적으로 두려워하고 사래를 돌려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이었고 긍휼하신 간섭과 도우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빼앗겨 슬퍼하며 낙심했을 아브람을 위해 비상하게 개입하셨고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선한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했다(롬 8:28).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자.** 우리는 질병과 궁핍과 각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참된 교회 안에 거해야 한다. 그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도 응답과 그의 보호하심이 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낙망하여 세상으로 가지 말자.

둘째로, 우리는 목숨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범직치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주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하리”고 말씀하셨다(마 10:28). 우리는 죽음을 겁내어 비굴하게 거짓말하지 말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활하신 섭리를 믿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했다(시 23:4). 시편 91:1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라고 말했고, 시편 121:8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롬 8:28) 하나님을 믿자.

주일오후학교 | 하나님을 훼방한 죄의 형벌

[레위기 24: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찢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대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등대는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세 개의 거룩한 기구 중 하나이다. 본문에서 등대는 ‘순결한 등대’라고 불리며, 또 거기에 쓰일 감람유도 ‘순결한 기름’이라고 불린다. 등대를 관리할 자는 아론이었다. 아론은 회막 안에 증거대가 있는 지성소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끊이지 않고 등불이 켜 있도록 해야 하였다.

성막의 등대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요 8:12). 성경에서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 지식과 완전한 의를 주셨고 또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셨다.

등대는 성령을 상징하는 뜻도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4: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성령께서는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일곱 영, 곧 완전한 영이시다(계 5:6).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깊은 의미에서 일체(一體)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의 신비를 믿는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이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기쁨을 누릴 것이다(갈 5:22).

또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뜻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며 등불이며 또 우리의 기쁨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빛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증거했고(105절), 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하였다(92, 103절).

[5-9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 둘을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火祭)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陳設)할 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떡상도 성막의 성소 안의 세 개의 거룩한 기구들 중 하나다. 떡상은 ‘순결한 상’이라고 불리며, 거기에 차려지는 떡과 그 위의 유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 ‘정결한 유향’이라고 불린다. 그 떡은 여섯 개씩 두 줄로 나란히 놓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후대의 유대교의 견해에 의하면 여섯 개씩 두 줄로 위로 쌓았다고 본다. 매 덩이는 에바 10분의 2, 즉 약 4.4리터의 밀가루로 만들었다. 그 떡은 매 안식일에 차리고 지난 것은 아론과 그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떡상에 차려진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시다. 요한복음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또 그 떡은 성경말씀을 상징하는 뜻도 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마태복음 4: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생명과 힘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힘을 주신다.

[10-16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훼방하며 저주하므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와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 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막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17-23절]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보응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셨다. 공의는 하나님의 한 근본적 속성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벌을 요청한다. 죄인은 자기가 지은 죄에 상응하는 공정한 벌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훼방하고 저주한 자에 대해 죽이라고 지시하셨다. 그들은 그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말씀과 성령의 빛만 붙들고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요 8:12). 그는 각 사람에게 비취는 참 빛이시다(요 1:9).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시다(시 119:105). 성령께서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시다(계 4:5). 그는 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시다(계 5:6).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을 상징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와 생명, 성경의 참된 지식, 그리고 성령의 깨우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자.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 그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시다(요 6:48).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그

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곧 속죄 신앙을 말한다. 또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 4:4). 옫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요 23:12). 우리는 세 끼 밥을 먹듯이 성경말씀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의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사 43:7)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사 43:21).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救贖)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었다(엡 1:3-14).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섬기는 것은 피조물인 인생의 의무이며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그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자.

수요설교

신랑의 사모함

[아가서 6:8-14] 왕후가 600이요 비빈이 80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바르 7:3)[순결한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들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구나. . . .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주께서 피흘려 사신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실제적으로도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되기를 힘쓰자.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교회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지키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자.

둘째로, 우리는 영적 성장에 힘쓰자. 지금 우리의 신앙 인격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포도나무나 석류나무의 순인가, 꽃인가, 열매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는 우리를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셋째로, 주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그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신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경건과 의심, 죄악과 불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인에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자.

[책안내] ● 김효성, **역대기 강해**. 제2판. 256쪽. 2,500원.

● 김효성, **열왕기 강해**. 제2판. 217쪽. 2,000원.

●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제2판. 233쪽. 2,000원.

● 김효성, **전도서 강해**. 제2판. 88쪽. 1,000원.

●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제2판. 239쪽. 2,000원.